

고규홍의 나무 생각



더불어 산다는 것

수국 꽃이 피었다. 우리의 여름을 오랫동안 밝히는 아름다운 꽃이다. 여름에 피어나는 대개의 꽃들은 평균적으로 개화 기간이 긴 편이다. 백 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운다 해서 백일홍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배롱나무가 그렇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을 무궁무진하게 피우는 무궁화가 그렇다. 수국도 여름 초입에 피어서 가을바람 불어올 때까지 꽃을 달고 있는 식물이다.

가장 눈에 띄는 화려한 부분이 꽃잎이 아니라 이 이야기다. 수국의 꽃에는 꽃잎이 없다. 꽃잎처럼 보이는 부분의 안쪽에 가늘고 작게 들어난 꽃술들만으로 꽃의 형태를 갖췄다. 꽃잎이 없는 못갓꽃잎이다. 만일 꽃잎처럼 보이는 부분이 없다면 벌과 나비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이루기 어렵다.

수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꽃잎 대신 꽃잎 뒷창개 화려한 조직을 만들어 낸 건 그래서다. 어쩌면 처음에는 꽃을 도드라지게 보이려고 여러 꽃송이를 모여 피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힘이 부족했다. 그래서 수국은 자디잔 꽃 겹에 다른 꽃의 꽃잎과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냈다. 꽃처럼 생겼지만 꽃이 아니라는 뜻에서 '헛꽃'이라고도 부르는 특별한 기관이다. 식물학에서는 포(柄)라고 부른다.

포가 꽃잎과 다른 차이는 생존 기간에 있다. 세상의 모든 꽃은 자신만의 존재 이유, 즉 꽃가루의 수정을 이룬 뒤에 시들고 낙화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포는 꽃잎이 아닌 까닭에 수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시들어야 할 까닭이 없다. 그래서 수국 꽃은 수정을 마친 뒤까지 남아 있어야

괜찮다. 그러니까 늦여름까지 남아있는 건 진짜 꽃이 아니라 헛꽃이었다. 헛꽃으로 벌-나비를 끌어들이 수국은 수정을 이뤘다. 고마움의 뜻으로 수국은 벌-나비에게 꽃밥과 꿀을 제공했다. 어느 꽃처럼 많은 양은 아니라 해도 벌-나비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을 건넸다. 목적을 이룬 꽃은 시들어 떨어질 차례다. 그러나 헛꽃은 꽃이 아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즈음에 헛꽃을 꽃으로 착각하고 찾아들 배고픈 벌-나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국으로서는 벌-나비에게 줄 아무것도 없다. 미안한 일이다. 수국은 그래서 자신이 이미 수정을 마쳤으며 꿀도 꽃가루도 남지 않았다는 뚜렷한 표시를 한다. 바로 '뒤집기 신통'이다.

'뒤집기 신통'은 수국 종류 가운데 특히 산수국 종류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헛꽃을 꽃처럼 가장자리에 피우고 벌-나비를 끌어들이던 산수국 꽃은 놀랍게도 주변의 모든 헛꽃을 백발십도 뒤집는다. 벌-나비에게 오지 말라는 뚜렷한 표시다. 얼핏 보아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가까이 다가가서면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벌-나비의 눈에는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다. 아무 대가도 없는 노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국 꽃이 벌-나비를 향해 펼치는 신비로운 배려다.

나무, 그 가운데에도 꽃을 피우는 현화식물은 꽃가루받이를 매개하는 곤충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나무는 일방적으로 곤충의 도움을만 요구하지 않는다. 나무는 곤충의 노동에 따른 분명한 대가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곤충의 헛수고를 강요하지 않는다. 나무와 곤충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숲, 이 땅에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온 지혜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배려와 양보는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였을 터림없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양보와 배려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좇으며 살아간다. 주변을 돌아볼 만큼의 짊을 얻지 못한 탓이다. 우리 사는 세상이 평화로울 수 없는 까닭이다. 양보와 배려, 이 땅에 더 풍요로운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생명 지혜이자 참 삶의 진리다. <나무 칼럼니스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이호철 호남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항공기 내 건강 관리

이러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항공사의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될까? 보통 객실 승무원이 기본적으로 응급 처치를 한다. 항공사는 승무원에게 인명 구조를 위한 기본 소생술과 함께 제세동기 작동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대부분 1년에 1회 정도 교육을 받고 있어 모든 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기내에서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승무원이 처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기내의 의료진을 찾게 된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이 탑승한 경우에는 함께 상의해 응급 처치를 하고, 만약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에 있는 의료진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항에 착륙을 하기도 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 비행과 관련된 스트레스로는 지상보다 낮은 기압과 산소분압, 소음과 진동, 난기류에 의한 흔들림, 차고 건조한 공기, 시차에 따른 신체부조화, 좁은 공간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등이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질병이 있거나 고연령자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항공기의 하강으로 인해 귀나 코 부비동 통증을 일으키거나 난기류

에 의한 흔들림으로 넘어져 외상을 입기도 한다.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앉아 있어 다리의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저리고, 혈관 속 혈전이 생기기도 한다.

해의 항공 여행에 필요한 간단한 응급 처치법과 건강 수칙도 알아보자. 먼저 비행 중 불안과 조조, 공포나 긴장 때문에 과다 호흡이 일어날 수 있다. 주증상으로는 과다 호흡, 어지러움, 메스꺼움, 손발의 저림 증상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비닐 주머니를 입과 코 주위에 대, 자신이 내뿜은 공기를 다시 흡입한다. 이어 몸의 수분 부족이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 공포감, 장기간 앉은 자세의 유지로 인해 단순 실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는 환자를 부드럽게 눕히고,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된다.

비행기 안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손발이 붓기도 하고 소화 불량과 같은 위장 질환 또한 흔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탑승 전 몸에 꼭 조인 의복이나 장식 등으로 인해 혈액 순환 장애가 오지 않도록 주의하며, 기내에서는 틈이 북도를 걸거나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손이나 목, 종아리 등을 수시로 주물러 주는 것도 좋다.

또 기내 차고 건조한 공기는 안구 건조와 피부 건조증을 일으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보습과 수분 보충에 신경을 쓴다. 생수를 자주 마시고 이뇨 작용을 일으키는 알코올과 커피 등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행기를 타고 출발지와 시차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하면 생체 리듬이 바뀌면서 시차 증후군이 발생할 건강 상태를 헤치게 된다. 그러하여 시차 증후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 전부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시차가 6시간 이상인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출발 3~4일 전부터 취침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좋겠다. 목적지의 시차 적응을 위해 유럽 쪽으로 여행한다면 평소보다 두어 시간씩 늦게 자고, 미주 쪽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일찍 자는 것이 좋다. 비행기 내에서도 적절한 수면과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항공기내에서의 질환이나 응급 상황은 지상에서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행을 떠나기 전 본인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수시로 컨디션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즐거운 여름 휴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배운식 광주시 건축추적과장

광주 랜드마크, 미래 먹거리가 되다

찬반이 오고갔다. 광주에는 랜드마크가 없으니 필요하다는 사람과 어저지로 숫자 '5·18'에 꿰맞추는 것 같아 다소 식상하다는 쪽도 있었다.

광주에서 특정 길을 조성하는 과정의 이야기도 회자됐다. 5월을 상징하는 518km를 맞추려는 데 단지 500m가 부족해서 코스를 늘려 거리를 맞췄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광주를 5·18이라는 숫자에 가두고 스스로 매몰돼 있지는 않은가 싶다. 5·18의 내재된 가치와 의미가 숭고한 것이지 숫자나 높이는 아닌 데도 말이다.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감쪽 방문한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 (Gardens by the Bay)를 보자.

싱가포를 대표하는 필수 관광지로서 꼽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지중해 지역의 건조한 기후를 모방한 '플라워 돔'과 열대 고랭지 식물을 볼 수 있는 '클라우드 포레스트 돔'에서 평소 보기 못했던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가장 손꼽는 슈퍼트리는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레이저쇼 야경과 함께 영화아바타의 주인공이 되어 보는 경험도 가질 수 있다. 12개의 슈퍼트리는 야경도 아름답지만 낮에도 구조물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50m에 달하는 트리는 모두 열대 식물로 덮여있기 때문이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말 그대로 정원이다. 꽃들이 만발하고 초목이 우거진 바로 그 정원.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식물원이나 수목원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다양한 매력에 있는 랜드마크다.

국내로 눈길을 돌려 N서울타워(남산타워)를 보자. 서울의 상징이자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높이 236.7m의 타워가 제공하는 탁 트인 전망을 즐기기 위해 약 840만 명이 N서울타워를 방문한다. 특히, 타워에 불이 들어오는 야간에는 더욱 그렇다. 최신 LED 기술을 적용한 조명으로 시시각각 색과 패턴이 변하는 빛의 예술과의 어우러짐 속에 다양한 미디어아트와 함께 색다른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N서울타워는 남산공원의 자연과 남산골 한옥마을 등 주변 많은 명소

들로 둘러 싸여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이다.

결국, 도시의 랜드마크는 타워의 높이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를 담은 독창성이고 그 것은 주변의 즐길거리와 충분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공한 도시들은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 도시 정체성을 만들고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518m 빛의 타워는 도시 랜드마크로 관광객을 끌어들이 체제된 광주 경제를 살리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광주 정신을 꼭 특색 건물이나 타워에 가두지 않는데 광주라고 가든스 바이더 베이나 마카오타워, 도쿄타워 같은 랜드마크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 광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빛의 타워 논란이 광주 랜드마크의 건립을 위한 첫 출발이 됐으면 한다. 시민 공감대 형성과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속의 과정을 통해 광주만의 독특하고 예술적인 랜드마크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본다. 광주는 세계속의 도시로 우뚝 서야 하니까.

社說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위한 지원 강화해야

한 개 군(郡)의 주민 수와 맞먹는 4만 명 이상의 귀농·귀촌 인구가 지난해 전남에 새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이 전남의 '인구 절벽' 위기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의 '2017년 귀농·귀촌 통계 조사' 결과 전남은 4만607명을 유치했다. 이는 전년보다 2006명이 는 것이다. 특히 귀농 인구는 전국적으로 1.9% 감소했으나 전남은 0.1% 증가한 2909명(1925가구)이 유입돼 경북(348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7%, 광주에서 34.2%가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촌 인구도 전년 대비 2.7% 늘어난 3만7698명(2만8273가구)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인구를 합하면 지난 6월 현재 장흥군(3만9697명)의 주민 수보다 많은 규모다. 이는 전남도와 시·군이 귀

농·귀촌 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와 예비 귀농인 대상 팸 투어,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덕분으로 분석된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전남에 대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인구 격차를 막고 주민 수를 늘리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업 후계 인력 문제의 해소, 농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다. 그동안 사전 준비가 부족해 도시로 되돌아가거나 보조금만 지원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원주민과의 갈등 관리도 과제다. 전남도와 시·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유리천장'에도 균열이 시작됐다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여성 의원 86명이 탄생했다. 지난 2014년 지방 선거(69명)때와 비교해 보면 24.6%나 늘어났다. 광주시의원 6명과 전남도의원 3명을 비롯해 광주 구의원 15명,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10명, 전남 시·군의원 19명,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33명 등이다. 전남도의회는 경우 전체 의원(58명)가운데 여성 의원이 8명(비례 5명 포함)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더욱이 광주·전남 지방 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여성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등으로 잇따라 선출되면서 지역 정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 회 전반기 의장에는 재선인 고점례 의원이 선출됐는데 고 의원은 광주 북구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부의장 역시 여성 의원인 주순일 의원이 당선됐다.

광양시의회는 3선 의원인 김성희 의원을, 해남군 의회 역시 3선인 이순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두 곳 모두 첫 여성 의장이다. 아직 의장단 선거를 하지 않은 광주·전남 의회가 많아 앞으로 여성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견고한 지방의회 '유리천장'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전남 지역 여성 의원들의 약진은 낡은 정치 문화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신선한 시각에서 남성 중심 정치의 틀을 깨고, 지역의 첨예한 정치·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여성 특유의 장점을 살려 여성과 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정가에 부는 여풍(女風)이 광주·전남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전기(轉機)가 되었으면 한다.

無等鼓

민선 7기의 시작과 동시에 광주시장, 전남지사, 구청장, 시장·군수 등 리더들의 리더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4년간, 아니 그 이상 지역의 미래는 이들이 어떻게 구상하고, 결정하며, 추진하는 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사실 리더십은 출신 배경, 경력, 과거에서 어렵게 예측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고위 관료,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을 거친 리더들이 주로 단체장을 맡아왔다. 그들의 장단점을 논하다 보면 그 원인은 이력이었던

수상이 된 그는 "저를 반대하는 45%의 사람들이 모두 바보일 리는 없다"며 노동당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판단과 신념에 기반한 합리성,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유머감각도 뛰어났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역시 취임식에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고, 직원들과 직접 소통에서 나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자극을 줬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권한 위임인 인수위원회가 아닌 간소한 취임준비기획단을 구성해 신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위 관료 출신으로 시·도 공직사회를 강화해 압박할 것이라는 주

리더십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최근 거어는 때보다 활발한 것은 좀 더 나은 리더십을 바라는 대중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도 될 듯 싶다. 리더십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리더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영국의 수상이었던 그는 포용적 리더십으로 유명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기념사를 부탁받은 처칠은 "전시에는 결단을, 패배시에는 저항을, 승리했을 때는 너그러움을, 평화 시에는 선의를"이라는 말을 남겼다. 1951년 보수당의 집권으로 다시

는 평가를 받았다. 시·도 공직사회를 강화해 압박할 것이라는 주의 우려와는 달리 부하 공직자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보여준 것이다. 현안이 쌓여있고, 미래를 개척할 기반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실정에서 이들 두 리더의 첫 선택은 인상적이었다. 출발점에 선 두 단체장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지역과 지역민의 가슴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들의 성공은 곧 지역에 더 많은 축복이며, 실 패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id@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4 / 팩스 062 222 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